



즉시 사용

배포

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

팀장 박영철, 사무관 곽재완
(044-200-2726, 2709)

이낙연 국무총리, 여름휴가 이용한 ‘지역관광 활성화’ 촉진

- 휴가기간(8.9~8.14) 전북·경남·충남 지역 유적지·관광지 방문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9일(목), 10일(금), 13일(월), 14일(화) 나흘간의 여름휴가와 이틀간의 주말휴일 동안 휴식과 함께 전북·경남·충남 지역 관광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.
 - 이 총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(‘18.7월)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점이 우리 국민의 단기 국내여행이 늘어날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고,
 - 이번 방문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함께 총리부터 솔선하여 하계휴가와 휴일을 이용해 국내 관광명소를 찾는다는 취지로 계획됐습니다.
- 휴가 첫날인 8월 9일(목)에는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8월 10일(금)에 세종공관으로 내려가서 8월 14일(화)까지 계속 세종공관에서 지냅니다.
 - 8월 10일(금)은 휴식을 취하고, 8월 11일(토)부터는 전라북도 군산·익산·전주, 경상남도 함양·하동, 충청남도 공주·논산·대전의 여러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
- 8월 11일(토)에는 전라북도로 가서 군산 동국사와 선유도, 익산 미륵사지와 전주 남부시장을 찾을 계획입니다.
 - 군산에서 참사문비*가 있는 동국사(군산시 동국사길)와 조선후기 수군진인 고군산진 터가 있는 선유도(군산시 선유도길)를 방문합니다.

* 참사문비(懺謝文碑) : 일본 조동종 소속 승려들이 일제의 만행과 자신들의
침병 역할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사문을 음각한 비석

○ 그리고, 익산 **미륵사지**(익산시 미륵사지로)에서 **미륵사지석탑** 등을
관람하고,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실업문제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
받는 **청년몰**이 있는 **전주 남부시장**(전주시 풍남문2길)을 찾습니다.

□ **8월 13일(월)**에는 경상남도로 가서 **함양의 개평한옥마을**과 **두레마을**,
하동의 도심다원과 **박경리문학관**을 방문합니다.

○ **술송주문화관**, **일두(정여창)고택** 등이 있는 **개평한옥마을**(함양군
지곡창촌길)과 **산머루 농업으로 와인제품을 브랜드화** 해 새로운
소득모델을 만드는 **두레마을**(함양군 삼봉로)을 찾아 갑니다.

○ 이어서 우리나라 차의 첫 재배지이자 **세계중요농업유산(GIAHS)**에
지정된 **도심다원**(하동군 신촌도심길)을 방문하고, '토지' 촬영지에
위치한 **박경리문학관**(하동군 평사리길)을 관람합니다.

□ **끝으로 8월 14일(화)**에는 충청남도를 방문해 **공주 마곡사**, **논산 파평**
윤씨종학당과 **돈암서원**, **대전 이응노미술관**을 찾을 계획입니다.

○ 먼저, 유네스코 **세계문화유산** 등재 사찰로 **오층석탑**(보물 제799호) 등
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**마곡사**(공주시 마곡사로)와, 충청
유교문화원 부지가 인접해 있는 **파평 윤씨 문중의 교육도장인**
파평윤씨종학당(논산시 종학길)을 방문합니다.

○ 이어, **돈암서원**(논산시 임3길)을 방문해 **응도당**(보물 제1569호)을 관람한 뒤,
이응노미술관(대전시 둔산대로)을 방문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.

※ (붙임) 방문 유적지·관광지 개요

1. 군산 동국사

○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의 말사 (주지 : 종걸스님)

○ 연혁

- 1909년 일본인 승려 우치다(内田)에 의해 '금강사'라는 이름으로 창건
- 1955년 불교 전북 종무원 인수
- 1970년 김남곡 스님이 동국사*로 개칭,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에 등록

* 동국은 해동대한민국의 준말로 우리의 절 이라는 뜻

※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사찰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찰

※ 참사문비(懺謝文碑) : 일본 조동종 소속 승려들이 일제의 만행과 자신들의 첩병 역할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사문을 음각한 비석

○ 동국사 내 지정 문화재 현황

- 동국사 대웅전(등록문화재 제 64호) : 앞면 5칸, 옆면 5칸의 정방형 단층 팔작지붕 흘처마 형식
-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(보물 제1718호)

대웅전	소조석가여래삼존상	복장유물
		

2. 군산 선유도

- 고군산 군도의 중심 섬으로, 진봉 반도 남서쪽 약 32km 거리에 위치하였으며, 전체 면적은 2.132km², 해안선 길이는 12.8km
 - 고려 시대에는 여·송 무역로의 기항지 역할을 하였고, 조선 시대에는 수군절제사가 통제하는 수군의 본부로 쓰임. 특히,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승리 후 전열 재정비를 위해 정박 기지로 사용됨
 - '섬의 경치가 몹시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고 선유도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전해지며, 원래 이름은 군산도
- 명사십리(明沙十里)
 - 천연 해안 사구 해수욕장으로,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명사십리로 불림
 - 1872년 『고군산 진지도』에도 나타나 있으며, 예로부터 전해오는 선유 팔경 가운데 하나이며, 1965년 당시 선유도를 관할했던 옥구군에서 개설
- 고군산진
 - 조선 후기 1624년(인조 2)에 군산 지역의 해상 방어를 위해 수군진 설치. 1799년(정조 23) 전라우수영의 명령을 받지 않는 독진(獨鎭)으로 승격
 - 19세기부터 서해안 일대에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자 고군산진은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졌고, 조선 전 수군 진영을 통틀어 가장 많은 군선을 보유
 - 1895년 일제 강압에 의해 고군산진 및 군산진이 폐지됐으며, 1909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이 그나마 남아있던 고군산진 건물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면서 고군산진은 흔적만 남게 됨
- 해안데크
 - '12~'13년간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일부로 개발(총사업비 12억원) 되었으며, 총 길이는 673m에 이룸

3. 익산 미륵사지

□ 익산 미륵사지 석탑

- 문화재 지정번호 : 국보 제 11호(1962.12.20일 지정)
- 시대 : 삼국시대(백제)
- 소재지 :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번지
- 규모 : 높이 14.5m(6층)
- 연혁
 - 백제 무왕때 건립(639년), 17세기경 붕괴된 것으로 추정
 - 1915년 일본인들이 붕괴된 면에 콘크리트 보강
 - 1998년 구조안전 진단 후 석탑 해체 수리
 - 2017년말, 6층까지 조립 완료
- ※ 석탑 외부 가설시설물 철거와 주변정리 완료하고 '19년에 수리준공식 개최
- 수리 후 미륵사지 석탑(동북측면)



□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현황

○ 시설

위치	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362		
개관일	1997.5.9. ※ 당초 전북에서 건립하였으나, 2015.12.30 국립으로 전환	준공일	1994.12.21.
시설 면적	대지면적: 39,695㎡ / 건축면적: 1,961㎡ / 연면적: 2,584㎡ 주차대수: 154대(대형 13대 / 소형 141대) 수장영역: 367㎡ / 전시영역: 931㎡ / 교육영역: 67㎡ / 사무영역: 140㎡ / 기타공용: 1,079㎡		

○ 소장품 현황 : 총 22,403점

구분	수량
보물	미륵사지 금동향로(보물제1753호) 1점
	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(보물제1991호) 9점
일반 소장품	미륵사지 출토 22,393점

4. 전주 남부시장

□ 시장개요

- 위 치 :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19-3(전동 295-4번지)
- 시장규모 : 점포 530개(영업 350, 노점 180) 상인 623명
- 영업현황('16년) : 일평균 매출액 88백만원, 일평균 고객수 7,502명
- 정부지원(국비·지방비) : 시설현대화 159억원, 경영현대화 20억원
 - * 시설현대화 : 아케이드('03), 포장 및 정비('03, '11), 외벽수리('04), 리모델링('05), 주차장('07), 상가개보수('08), 전기공사('11), 공동판매장('17), CCTV('17)
 - * 경영현대화 : 상인대학('06, '09, '13), 상인교육('07~'13) 글로벌명품('15~'18) 등

□ 주요특징

- 600년 역사를 지닌 시장 고유의 전통과 청년들의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체험 시장으로 육성
- **(야시장 운영)** 시설비, 매대제작·보관장소, 문화행사 및 홍보비 등 지원
 - * 다문화 먹거리, 풍남문 파사드 공연, 문화행사 등 운영으로 금요일(7천여명), 토요일(9천여명) 방문 및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고객수 67%, 매출액 19% 증가
- **(지역축제 연계)**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, 영화와 캠핑 컨셉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 추진 및 시장홍보부스 운영으로 영화제 관객 시장으로 유입
 - * 평일 평균 방문객 7천명 이상, 주말 평균 관광객 15천명 이상 방문
- **(문화공간 확대)** △한복, 목공예 등 분야의 장인 시제품 판매 공간 '장인점포' △고객 휴게공간 '하늘정원' △천변 점포에 예술가·공예가 등이 입점한 체험형 문화 예술공간 '징검다리 마켓' 등

□ 청년몰

- (개요) 남부시장 6동 2층 위치, 영업점포 33개(총점포 36개), 상인 37명
- (주요업종) 음식 및 차류, 의류, 인테리어 소품, 디자인잡화 등
- (추진현황) 문체부 주관의 문전성시(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) 사업*을 통해 추진('11~'13년) 후, 청년 상인 자체 조직 구성 및 남부시장 상인회와의 협력**을 통해 운영 중

* 사업비 : 750백만원(국비 410백만원, 시비 340백만원)

사업내용 : 청년 장사꾼 활동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

-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장사꾼 육성 청년몰 조성
- 문화를 통한 상인간의 화합을 위한 문화동아리 운영(품물, 민요교실)
- 고객 유입을 위한 주말 청년 야시장 운영, 시장 현장체험 및 투어 안내

** 점포임대료(월5~8만원) 및 시설관리, 청년몰 입점자 선정 및 재계약, 홍보 지원 등

- (추진성과) ①고령화된 상인, 낙후된 시설 위주의 시장 이미지를 벗어나 쇼핑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이미지 변화
②시장의 지속가능성과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청년과의 결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

* 주말 1층 기존 식당 상가의 매출 10~20% 증가

□ 장인점포

- (개요) 남부시장 4동 1층 위치, 영업점포 3개, 상인 5명
- (추진목적) 전통적 수공업 기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제작 기반 창업가 육성 및 남부시장 브랜드 상품 개발
- (추진현황) 중기부 주관의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추진('15~'17년)
→ 시장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체험·전시 공간 조성
- (추진성과) ①전시 비롯 다양한 문화 행사 통해 상업적 목적외 문화예술이 시장과 결합하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 부여 계기 ②남부시장 자체 상품 개발 통해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및 고유의 아이덴티티 마련

5. 함양 개평한옥마을

- 위치 : 함양군 지곡면 병곡지곡로 935
- 유래 : 두 개울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으로 “길개(介)”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개평으로 불림
- 주요유적 : 일두(정여창)고택, 풍천노씨 대종가, 노참판댁 고가, 하동정씨 고가, 오담고택 등 100년이 넘는 한옥이 60여채

※ 함양 일두고택(중요민속자료 제186호), 일두정여창묘역(경상남도 기념물 제268호) 일두정여창 선생 사당비(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39호)



개평한옥마을 전경

술송주 Myungjuwon



술송주 한잔 머금고 돌아보니 (

쌀, 곡자, 송순, 송일과 지리산자락 청정 지하 일명가람 고유 전통명주입니다.

전통 약주 방식의 13% 재료가 함유하여 만든 리



하동정씨(일두 정여창 가문) 16대 손부인 박흥선(국가지정식품명인 제27호)씨가 대를 이어 만들어 가고 있는 술송주와 개평한옥마을 내 술송주 홍보관

6. 함양 하미양 와인밸리 (두레마을)

- 위치 : 함양읍 삼봉로 442-14
- 대표자 : 이상인
- 특징 : 지리산 줄기 해발 500고지 위치의 농원으로 산머루 농업으로 제품을 브랜드화하여 와인을 생산하며, 산머루 테마관광을 자원화하여 6차산업을 실현한 선진농원
- 추진상황
 - 1985. 1월 함양군 귀농
 - 1995. 3월 농민후계자 선정, 산머루시범농원 운영
 - 1998. 11월 산머루 가공공장 설립
 - 2014. 1월 농수산식품부 6차산업 인증업체 선정
 - 2015. 6월 6차산업경진대회 경상남도 최우수상
 - 2015. 11월 대통령 표창(농업발전공로) 수상



하미양 와인밸리 전경



와인밸리 내 와인 저장소

7. 하동 도심다원

- 위치 :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55 (대표장 : 오시영)
- 특징 : 수령 1,000년 된 차나무[경상남도 기념물 제264호]를 보유하고 있는 다원으로 7대째 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
- 수상내역
 - 1997 ‘하동 차 문화 축제’대상
 - 2008 대한민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표창
 - 2009 ‘제14회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’ 올해의 좋은 차 선정
‘제29회 차의 날 기념행사’ 대한민국 올해의 명차
‘명원 국제 청소년 차 문화대전’ 대통령상 수상
 - 2015 ‘제15회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’ 올해의 좋은 차(장관상)



도심다원 녹차밭 전경



차를 대접하는 도심다원 오시영 대표와 도심다원의 茶마실 내부

8. 하동 박경리문학관

□ 소설가 박경리

- 1926년 10월 28일 경남 통영 출생, 1950년 수도여자사범대학 졸업 후 황해도 연안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
- 1969년 대하소설 '토지' 연재를 시작하여 1994년 8월 26년만에 '토지' 전체를 탈고.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객원교수로 활동, 1996년 토지문화재단 창립하여 활동하다 2008년 5월 5일 폐암으로 타계

□ 문학관 개요

- 위치 :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705 외 3
- 면적 : 부지면적 4,090㎡, 건축면적 307.44㎡
- 조성기간 : 2016. 1월 ~ 4월
- 전시물품 : 41점(국어사전, 책상, 만년필, 안경, 액자, 육필 원고 등)

□ 추진현황

- 2015. 10. 9. : 사업 추진계획 수립
- 2015. 10. 10. : 박경리선생님 동상 설치
- 2016. 2. 29. : 전시유품 선정(재봉틀, 국어사전, 육필원고 등 41점)
- 2016. 5. 4. : 개관식



박경리문학관 외부



소설가 박경리



박경리문학관 내부



9. 공주 마곡사

- 소속 : 조계종 제6교구 본사
- 연혁(마곡사 사적입안 기록)
 - 640년(백제 무왕) 신라의 자장율사가 창건
 - 1172년(고려 명종) 보조국사 중수, 범일대사 재건
- 참고사항
 -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인천형무소 탈옥 후 은거
 -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
- 주지 : 원경스님
- 마곡사내 문화재 현황
 - 오층석탑(보물 제 799호), 영산전(보물 제 800호), 대웅보전(보물 제 801호), 대광보전(보물 제 802호), 석가모니불괘불탱(보물 제 1260호) 등
- 마곡사 사진



10. 논산 파평윤씨종학당

- 문화재 지정번호 :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2호(1997.12.23일 지정)
- 소재지 :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종학실 39-6
- 연혁
 - 인조 21년(1643년), 윤순거가 문중 자녀교육을 위해 세운 후 종약 제정
 - 화재로 소실되었으나, 1970년 윤정규가 다시 지음
 - 1999~2003년까지 원형 복원 및 주변정비



11. 논산 돈암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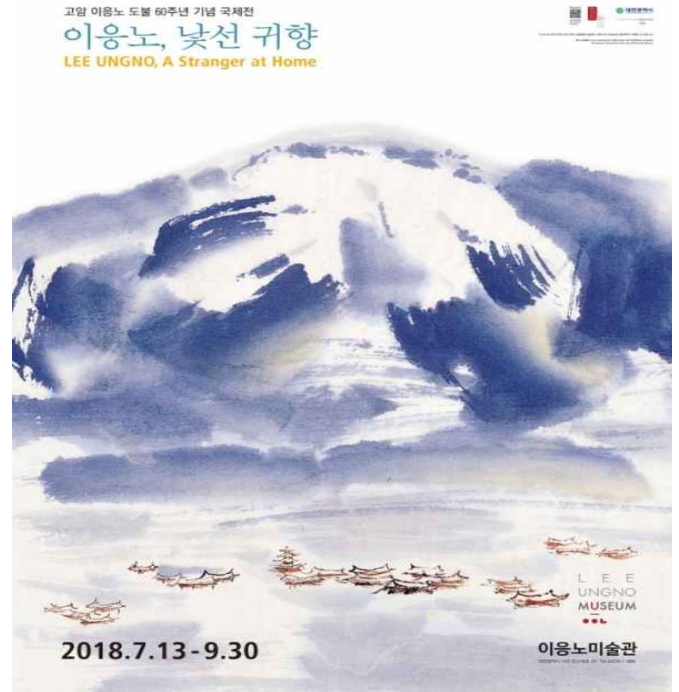
- 서원 서북쪽에 있던 돈암이란 큰 바위의 이름을 일컬어 서원이름을 돈암이라 함
 - 문화재 지정번호 : 사적 제383호(1993.10.18일 지정)
 - 소재지 :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-14
 - 연혁
 - 김장생(1548~1631) 선생을 제사지내고 그의 학문을 이어받기 위해 1634년(인조 12년) 건립
 - 1660년(효종 1년) 돈암서원 사액현판이 내려짐
 - 1880년(고종 17년) 현 위치로 서원 이전
 - 1993년 사적 제383호로 지정
 - 2008년 응도당* 보물 제1569호로 지정
- * 학문을 갈고 닦던 강당

전경	응도당(보물 제1569호)
	

12. 고암 이응노 도불 60주년 기념 국제전 : 이응노, 낯선 귀향

□ 전시 개요

- 기간 : 7.13.(금)~9. 30.(일)/80일간
- 장소 : 이응노미술관 (대전 서구 둔산대로)
- 작품 : 약 90점
- 기획 : 마엘 벨렉(Mael Bellec)*, 세르누쉬 미술관 학예연구사
- * `17년 파리에서 이응노 회고전 기획



- 내용 : 파리시립동양미술관인 세르누쉬 미술관(Musée Cernuschi)이 소장한 이응노 작품들을 한국에 선보이고, 세르누쉬 미술관 큐레이터 마엘 벨렉(Mael Bellec)의 관점에서 이응노 작품 세계가 갖는 다층적 정체성을 조명

□ 고암 이응노 화백

- 1904년 충청남도 홍성출생, 동양화의 전통적 필묵을 활용해 현대적 추상화를 창작한 한국현대미술사의 거장
- 1958년 프랑스로 건너간 이후, '문자추상', '군상' 시리즈 등 동서양 예술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화풍을 선보이며 유럽 화단의 주목을 받고, 영국·이탈리아·벨기에·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전시회 개최
- 1964년 세르누쉬 미술관 내에 '파리동양미술학교'를 설립하여 프랑스인들에게 서예와 동양화를 가르치며 동양문화 전파에 힘쓰